

제13강 프랑크 하르트만의 『매체 철학』 I

(1교시)

* Frank Hartmann의 『Medienphilosophie(2000)』는 매 장마다 마지막에 요약을 달아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번역했습니다.

2장. 상상적인 공간들

근대 유럽에서 사회-경제적인 위기의 와중에 새로운 확실성을 추구했을 때, 데카르트의 철학은 추상적인 사유를 ‘명석판명’하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절대적인 진리의 도구로 정립한다. 자아와 세계 간의 매개가 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데, 여기에서 신적인 계시의 자리에 수학적 증명과정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학문의 역사는 사회적 문맥을 추상해버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잘못된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그 영향 중 하나는 인식의 이원론적인 근본 구조, 즉 물질과 정신의 분리이다. 이러한 분리의 결과는 정신과학들에서 형이상학(자연에 대해 존립하는 형이상학)을 특권화 하는 강력한 이론적 개념이 된다. 자연과학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새로운 탐구의 길(물체는 더 이상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조치는 ‘영혼을 건드리지 않는다’)을 여는 해방을 표현한다. 자명한 주제 앞에서는 세계의 현존이야말로 의문의 대상이 된다. 이미 기능하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의 배경, 즉 인쇄문화와 출판문화의 배경으로 해서 확신들이 뒤따른다. 근대의 사유는 이러한 특수한 서적 문화에 빚지고 있다. 철학자는 사유의 사실 못지않게 글쓰기의 사실을 반성한다. 그 결과 철학자는 스스로를 저자로서 고안하게 된다. 철학자는, 그때까지 자신의 이론 형성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반적인 공공성에 대한 학술적인 경전화의 강요를 넘어서게 된다.

근대의 인식론적인 문제는 세계의 특수한 ‘매체성’에서 출구를 갖는다. 세계의 매체성은 이성 시대의 특징이 되는 문화 기술들(언명의 기술(記述)가능성, 일반적인 의무, 보편화된 권리 주장, 무시간성)에 관련하여 보아야 한다. 철학적인 글쓰기 체계에서 학문적인 언명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구성적인 효과는 저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은폐된다. 임마누엘 칸트의 비판적인 주체성의 철학은 새로운 사회 현실을 반성하는 데에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전히 지식, 행위 및 도덕을 정초해 주는 새로운 내용을 찾고 일관되게 틀 지우고자 노력하고(Ernst Gellner), 통합적인 세계시민적 질서를 향해 노력하고(Stephen Toulmin), 그와 동시에 그 공개의 원리를 개혁한다.

3장. 계몽과 공개 - 칸트에서의 이성적 진리의 조건들에 대해

18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규범적인 권리 주장들과 함께 이루어진 정치적인 전복에 따라 봉건-대의적인 공공성은 크게 변한다. 즉 전통적인 세계상 대신에 새로운 도덕적 보편주의가 제시된다. 논리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가 통합된다. 그리고 문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된다. Ernst Gellner는 아주 날카롭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즉 첫째로

합리화의 프로그램에서 본질은 그저 좋은 믿음에 근거한 세계의 현실에 대한 승인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것, 둘째로 인간 정신의 구조가 세계에 대한 모든 기획의 토대가 되며, 이때 칸트가 넘겨준 일조의 ‘계약에 관한 요강’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 정신은 정밀하고 마찰이 없는 기계로서 기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적인 규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은, 칸트에서(1784) 논증적인 공공성에 굳게 결합되어 있는 진리 설립의 힘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칸트는 흥미로운(때로는 비판되는) 구별을 한다. 그것은 이성의 사용이 원리상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성의 사용이 사적으로 제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적인 이성의 사용을 보장하는 한 계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아직 학자공화국(Gelehrtenrepublik)으로 나타나는 수용 권력의 지배권이 맨 먼저 주장된다. 이와 더불어 계몽은, 개인이 정의할 수 없고 예컨대 거짓된 권위들로부터 그러나 또한 상상력의 착오로부터 벗어남을 통해 다만 거기에 기여할 뿐인 인류의 집단적인 발전을 통해 조명된다. 이 지점으로부터 칸트는 인식의 확실한 경계에 대해 탐구를 했다. 여기에서 인식은 [인류의 집단적인 발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규칙(인간됨의 공통적인 근본 상태)을 따르는 주체의 작용으로 간주된다. 공개의 원칙은 ‘이성적 본질’(Vernunftwesen)이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고 자율적인 규칙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정치적인 담론의 장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공개되고 따라서 공공적인 비판에 자신을 내맡기는 저자는 스스로를, 기대되는 사회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직무상의 자기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를 규제하는 이상적인 시민적 주권으로 확립한다.

(2교시)

4장. 글, 말, 사유 - 언어철학적 맹아의 지형에 대해

18세기 후반에 개인적인 교양이 강조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계시된 텍스트를 대신하는 다양한 텍스트들로 귀결된다. 세계는 읽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세계의 가독성(可讀性)은 인간적인 현실 경험의 견본이 된다. 이에 대한 특출한 예로서 백과사전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부르주아적인 전체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텍스트 속에서의 지식이 문화적 생산물로 부상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말은 유기적인 통일태로서 이성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다. 이때부터 철학적인 탐문은 인간 사유의 한계가 어느 정도로 말의 한계와 합치되는가를 궁구하는 것이 된다.

그 때, 인식이 주체의 활동 수행 또는 오히려 구성 작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의] ‘활동 수행’(Leistung)은 철저히 의심받게 된다. 칸트는 자신의 인식 비판에서 인식함에 있어서 과연 확실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탐문의 주제로 설정한다. 그러면서 이를 자연법칙들에 대한 당시의 탐색에 유추적으로 견준다. 헤르더(Herder)와 훔볼트(Humboldt)의 실용적인 인간학은 칸트의 선형철학과 거기에서 수행되는 언어, 문화 및 역사의 순수화에 대한 비판을 보충하면서 극복해야만 했다. 인간의 사유 능력은 언어의 능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됨과 말할 수 있음은 공속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이 ‘이성’

으로서 노력하여 문화적으로 형성한 것에 관련해서 그러하다. 언어의 구조적인 속성들은 흄 볼트에게서 알려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언어에서 인간에 대해 행사되는 지배력의 요소를 발견한다. 그는 이미 언어의 구조적 속성들을 고찰한다. 정신적인 작용으로서 언어는 항상 새롭게 산출된다는 것, 그러한 언어의 새로운 산출은 분명 개별 인간이 그 어떤 무제약적인 지배력도 발휘할 수 없는 객관화된 전제들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찰한다.

개별 언어들은 사회적인 결속에 의해 현실을 지배하려는 인간들의 공통된 기반을 지시한다. 사유 방식과 발화 방식은 점차적으로 역사-문화적인 전개의 획득물로서 간주된다. 사유와 관련하여 제약 조건이자 제약받는 것으로서 고찰되는 말의 이중적인 구조는 글에 종속됨으로써 재차 부각된다. 말은 인간 실존의 매체이자 이성의 분절화이고 바로 그럼으로써, 단지 객관적인 세계와 대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 행위의 활동성 내지는 부분이다.

5장. 언어의 너머 - 프리츠 모터너(Fritz Mauthner)의 언어철학의 급진화

일반적으로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성(Verstand)이 필요하다는 것을 칸트가 지적했다면, 모터너는 언어 비판에 대해 급진적인 행보를 수행한다. 그의 언어 비판에 따르면, 현실성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닌 개념 세계의 자손이다. 선험철학에서는 맨 먼저 지성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면, 모터너의 관점에서 보면 맨 먼저 말함(Sprechen)이 사유 내용을 가능하게 한다. 지성을 떠나서는 자연에서 그 어떤 질서도 식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인식의 범주들은 주관적이면서, 전승되는 언어 형태들에 종속된다. 모터너는 언어 구성주의적인 세계상의 모델을 고안한다. 그것으로써 그는 비판적인 의도로 사유가 자신에게 고유한 언어적인 제약 조건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시도한다. 비트겐슈타인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세계의 이러한 원칙적으로 언어적인 매개됨(매개성)이 일반 문법의 의미에서 해독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즉 그러한 확실성의 형태는 없고 단지 실용적인 인간의 활동으로서 문화상대적인 말함(사유함)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언어 비판은 단어의 미신을 분쇄할 것이다. 단어의 미신은, 언어적인 축하의 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의 결과를 무르익게 하는 거짓된 표상들을 산출하듯이, 단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존재에 기호를 붙인다는 사실에서 성립한다.

언어는 인식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방향을 잡는 도구로서 그리고 알림의 도구로서 필요하다. 즉 만약 우리가 언어적인 매개를 통해 사물들을 확고히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그들 언어들에 속한 단어들과 그들이 지닌 그때마다의 철학(사유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말함으로서)의 관념성으로써 그들의 세계에 대한 다소 우연적이고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표현을 결코 넘어서서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낱말들을 마음껏 비웃음으로써, 말없는 파악을 통해, 또는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로고크라티와 절연(絶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모터너에 의해 또 다시 암시된다. 모터너는 실재와 그 재현 간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결정적으로 넘어서는 행보를 확실하게 내딛지 않은 채 매체로서의 언어가 갖는 한계를 조감한다.